

알프레드 히치콕의 <이창> 속 여성에 대하여

1. 서론

알프레드 히치콕의 <이창>에서 여성은 그 시대의 여성상과 비추어 보았을 때, 특별한 태도를 취한다. <이창>에서 주요 여성 등장인물로 나타나는 인물은 '리사 프리몬트'와 '스텔라'이다. 영화 속에 주요 남성 등장인물인 '제프리'는 다리를 다쳐서 움직일 수 없다. 여성 주인공들은 그런 그의 옆에서 사건의 실마리를 함께 찾고 적극적인 행동을 보인다. 즉 <이창>에서의 여성은 1970년대에 활발하게 발생했던 여성해방운동의 전조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영화 속 남성 주인공인 제프리의 '행동의 제약'은 '여성의 활약'을 통한 근대성을 드러내기 위한 감독의 설정이 아닌지 의문이 들었다. 제프리는 자신의 방 안에서 '썬월드'의 살인 사건을 목격한다. 제프리는 살인 사건에 대한 심증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 사건의 구체적인 실마리를 찾아내고 물증을 확보한 것은 여성이었다. 즉 남성 주도적인 상황이 아닌 여성의 주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남성 못지않게 여성들도 사건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하고자 했다고 생각했다. 특히 제프리의 친구인 경찰 '도일'은 여성의 직감을 믿었다가 몇 년 동안 허탕을 쳤다는 내용의 대사를 한다. <이창>에서 남성은 논리적이며 여성은 감성적이라는 구도 하에, 일련의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여성은 그들 자신이 '불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에 대해 저항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의도했다고 여겨진다.

이처럼 1957년에 개봉한 <이창>은 여성의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근대성'을 드러내고자 한 작품임을 본론에서 4가지 근대적 요인들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미국에서 여성운동은 1840년대 이후부터 1920년 여성 참정권이 인정되는 시기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는 그 관심이 쇠퇴하였지만 서구 페미니즘에 의해 1960년대부터 여성운동이 재개되었고 여성해방운동으로 발전했다. 즉 여성해방운동의 사회적 흐름이 발생하기 시작했던 시기에 개봉한 <이창>은 여성을 통해 근대성을 나타내고자 한 작품이라 볼 수 있다. <이창>에서 여성을 통한 근대성을 나타내는 요인들을 '신여성을 동경하는 사회분위기', '여성 관찰자', '사소한 것에 대한 주목', '여성의 직업 선택의 자유'로 총 4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2. 본론

① 신여성을 동경하는 사회 분위기

1929년 미국에서는 여성전문 역사학자 협회가 설립되었고 1934년에 처음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는 이 시기를 전후하여 여성학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제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69년부터 대학에 여성학이 신설되기 시작했는데, <이창>은 이러한 여성학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사회적 흐름을 읽고 여성의 주체적인 행동을 통해 ‘신여성’의 모습을 부각시킨 영화라고 볼 수 있다. <이창>에서 주체적인 행동을 하는 ‘신여성’의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장면은 리사가 제프리에게 자신도 사진 기사가 되어 함께 일하겠다는 장면이다. 제프리는 사진 기사의 현실적으로 고된 환경과 여성의 신체적 한계를 지적하며 리사를 회유한다. 그러나 리사는 제프리와 함께 있고 싶다고 그의 설득에 저항한다. 이러한 리사의 모습은 능동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인다. 즉 <이창>에서는 리사의 능동적인 행동을 통해 신여성에 대한 동경을 그려냈다. 두 번째 장면은 스텔라와 리사가 쏘월드 부부의 집 앞의 마당을 파내러 가는 장면이다. 쏘월드가 도망치기 전에 정확한 증거를 확보해야하기 위해 스텔라와 리사는 스스로 삽을 찾으며, 꽃의 높이가 달라진 마당을 보며 파내겠다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스텔라와 리사의 모습은 자발적인 행동을 통해 신여성의 면모를 드러냈다. 세 번째 장면은 스텔라와 리사가 마당을 삽으로 파내지만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는 장면이다. 쏘월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촉각을 다루는 시간에 스텔라와 리사는 마당을 파냈지만 결국 허탕을 친다. 그러나 여기서 리사는 포기하지 않고 쏘월드의 집으로 침입한다. 이러한 리사의 모습은 여성의 용감한 모습을 나타내며, 신여성의 모습을 그려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이창>에서는 스텔라와 리사의 두 여성 등장인물을 통해 ‘능동성’, ‘자발성’, ‘용기’를 통해 여성의 주체적인 행동을 드러냈다. 이는 신여성의 면모를 드러내어 작품에 신여성을 동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담아냈다고 볼 수 있다.

② 여성 관찰자

<이창>에서 주목할 행위는 바로 ‘보는 행위’이다. 제프리는 자신의 방에서 다른 가정집들을 엿보고 있다. 제프리의 이러한 바라보는 행위는 권력의 근대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프리는 자신의 카메라와 망원경을 통해서 다른 집을 엿본다. 이러한 ‘보는 행위’와 권력의 근대성은 판옵티콘¹⁾의 구조와 연관이 있다. 원형 모양의 건축양식으로 구성된 감옥인 판옵티콘은 감시자인 권력자는 감시라는 행위를 통해 ‘권력’을 확보한다. 판옵티콘의 구조에서 수감자들은 감시자들을 볼 수 없으며, 오로지 감시자들만이 수감자의 일거수일투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감시 체계는 수감자로 하여금 불순한 행동을 억제시키며 나아가 감시자(권력자)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만든다. 이와 같은 판옵티콘의 감시 체계는 수감자를 지속적인 시선에

1) 공리주의를 주장한 제러미 벤담이 말한 원형 모양의 감옥 건축양식이다.

노출시킴으로써 자동적으로 감시 행위의 ‘권력’을 형성한다.²⁾ 즉 판옵티콘의 감시 체계 구조는 ‘보는 행위’가 곧 ‘권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이창>에서 제프리가 다른 가정집들을 엿보는 행위는 곧 근대의 ‘권력’을 형상화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보는 행위’는 그저 ‘바라보는 행위’와 ‘관찰’로 구분할 수 있다. <이창>에서 도일과 제프리가 대화를 하는 장면에서 도일이 제프리를 ‘탐정’이라고 비유한 대사가 있다. ‘탐정’은 근대성을 가진 직업 중의 하나로, 특히 보는 행위 중에서 면밀히 탐색하는 의미인 ‘관찰’을 하는 직업이다. 이러한 관찰의 행위는 사물 혹은 사람을 면밀히 조사하는 작업이므로 ‘지성’의 행위로 볼 수 있다. 즉 ‘관찰자’라는 것은 권력을 가진 바라보는 행위 중에서도 지성의 행위를 하는 사람인 것이다. <이창>에서는 여성 관찰자가 출현했다. 이는 여성도 권력의 주체이자, 지성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근대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③ ‘사소한 것’에 대한 주목

제프리는 쏘월드의 ‘사소한 행동’을 통해서 사건의 실마리를 발견했다. 쏘월드가 저녁에 수차례 어딘가를 다녀오는 모습을 본 제프리는 그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는 식칼과 톱을 보았다. 리사는 쏘월드가 보석과 핸드백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여성은 어딘가 멀리 떠날 때 보석을 두고 가지 않는다며 여성의 심리를 이야기했다. 도일은 이 이야기를 듣고 쏘월드가 부인이 열차를 타고나간 정황, 편지 등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며 제프리와 리사의 의심을 반박한다. 그러나 본 작품에서 이러한 사소한 정보들은 결국 사건 해결의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했다. 제프리와 리사가 주목한 이러한 ‘사소한 것들’에는 근대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 근대적인 연관성을 1916년에 미국에서 선보인 Susan Glaspell의 <Trifles>³⁾라는 연극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Susan Glaspell의 연극 <Trifles>는 미국 사실주의에 기초한 작품으로, 외딴 농가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을 다룬 작품이다. <사소한 것들>이라는 제목의 이 작품은 ‘논리’적인 남성과 ‘감성’적인 여성을 토대로, 여성적인 것들로 치부되는 주방과 사소한 것들, 그리고 그 시대의 여성이 느꼈을 애환을 담아냈다. <Trifles>의 줄거리는 Wright 부부의 집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에서 시작한다. 극의 도입부에서는 이웃인 Hale이 Wright의 죽음을 발견한 후 신고하며, 보안관과 지방검사가 Wright 부부의 집을 방문한 것으로 구성되었다. 사건 해결 과정에서 남성들은 여성의 공간인 ‘주방’을 무시하는 행위를 보인다.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실마리는 Hale 부인과 Peters 부인이 Wright 부부의 집에서 ‘죽은 카나리아 새’를 발견하는 것에 있다.

2) 미셸 푸코에 따르면 판옵티콘 시설의 주요한 효과는 수감자로 하여금 권력의 자동적 감시 기능을 확보해, 수감자를 지속적이고 의식적인 상태로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

3) <Trifles>는 1916년 8월 8일, 미국 메사추세츠 주에서 공연된 Susan Glaspell의 연극이다. 미국 사실주의에 있어서 중요한 작품인 <Trifles>는 여성 참정권이 인정받지 못하던 시기의 사회의 가치와 행동양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작품이다.

Wright 부인이 자기 자신처럼 아끼는 카나리아 새가 그녀의 남편인 Wright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죽였을 것이라는 것을 두 부인들은 추측한다. 그리고 두 부인은 Wright 부인이 새를 죽인 남편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해 그가 새를 죽인 동일한 방법으로 Wright를 살인한 것이라고 살인 동기를 밝혀낸다. <Trifles>는 당시 여성참정권이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에, 억압받는 여성과 그녀들이 상실한 정체성에 대해 다룬 작품이다. 이처럼 <Trifles>에서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된 ‘사소한 것’들에 대한 주목은 ‘여성에 대한 이해’를 나타낸다. <이창>에서 이러한 ‘사소한 것’들에 대해 주목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하는 과정이므로 근대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④ 여성의 직업 선택의 자유

<이창>의 네 번째 근대적 요소는 여성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에 있다. <이창>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리사가 책 <BEYOND THE HIGH Himalayas>을 읽고 있는 장면이 나온다. 이 장면은 리사가 제프리와 함께 사진 기사의 일을 하겠다고 고집하던 장면에서, 결국 리사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리사의 선택은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여성의 경제적 참여와 연관이 있다.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미국은 4년 동안 6백만 명의 여성 유급 노동력을 편입시켰다.⁴⁾ 이와 관련해서는 각각 상반된 관점이 존재한다.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많은 미국 여성들은 집에서 벗어나 직업을 가지게 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반면 2차 세계대전 중 여성들의 경제적 참여는 단지 여성에 대한 차별의 장벽이 일시적으로 낮아진 효과라고 보는 상반된 관점이 있다. 2차 세계대전으로 전후의 영향이 팽배할 이 시대에 <이창>이라는 작품 속에서 리사가 사진 기사라는 직업을 스스로 선택한 것은 ‘스스로 직업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근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960년대까지 미국에서 여성의 직업은 가사노동에 적합했을 뿐 그들의 직업적 정체성은 무시당한 것이 보편적인 인식이었다. 또한 그 당시 정신분석학, 심리학 등 학계 학자 및 여성잡지 편집자 등은 여성 최대의 미덕은 그들의 여성성을 자랑으로 여기는 것과 유년 시절부터 그들의 삶을 남편과 아이에게 헌신하는 것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주장했다.⁵⁾ 즉 리사 본인이 스스로 사진 기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은 당시 여성의 직업적 정체성에 대한 기틀이 확립되는 과정이라는 의미를 담아내는 것으로, 근대적인 요소를 지닌다.

4) 이창신. 『미국 여성사』, 살림, 2004, 49페이지.

5) 이창신. 『미국 여성사』, 살림, 2004, 13페이지.

3. 결론

<이창>은 개봉할 당시 시대의 근대적인 의식을 담아낸 작품이다. 앞서 제시한 신여성을 동경하는 사회 분위기, 여성 관찰자, 사소한 것에 대한 주목, 여성의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항목 들을 통해 <이창>의 근대적 특성을 나타냈다.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작품인 <이창>에서의 여성은 적극적이며 근대적인 인물이다. 여성해방운동이 활발해지기 직전의 시기에 만들어진 <이창>은 ‘리사 프리몬트’라는 인물을 통해 신여성의 근대적 지향점을 보여주었다.

<이창>의 감독인 알프레드 히치콕의 ‘여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알프레드 히치콕을 ‘여성혐오주의자’로 보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여성의 곤경을 공감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관점과 여성성에 대한 ‘양가성’을 보인 사람이라는 관점이 있다. <이창>의 근대적 요소를 생각하며 정리하는 과정에서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은 여성성에 대해 ‘양가성’을 가진다는 관점이 설득력 있다고 생각한다. <이창>에서의 여성, ‘리사 프리몬트’는 매혹적이며 용기 있는 여성이다. 특히 발을 다쳐 움직이지 못하는 제프리는 남성의 무능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즉 제프리나 리사의 두 인물을 통해 남성의 무의식 속에서는 우월한 여성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위협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여성은 남성 우월주의 사회 속에서 희생당하는 존재로도 볼 수 있는 관점이 존재한다. 쏘월드 부인의 살인 사건이 그 예이다. 즉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은 본 작품을 통해서 우월한 여성에 의해 남성이 무의식적으로 겪는 위협과 남성 우월주의 사회에서 여성은 곤경을 겪는 대상임을 동시에 드러내어 여성성의 ‘양가성’을 드러냈다고 보는 관점이 설득력이 있다고 여겨진다.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에 대한 여성성의 양가성은 <이창>을 통해 그 시대의 여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드러냈다고 본다. 발레를 하는 여성과 고독한 여인에 대한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쏘월드 부부처럼 곤경을 겪는 여성의 참혹한 사건, 그리고 리사 프리몬트를 통한 진취적인 여성 등 다양한 여성상을 한 작품에서 다뤘다. 본 작품은 여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행위 및 관계를 통해 여성 인권이 신장되기 시작한 시기의 모습인 ‘신여성을 동경하는 사회분위기’, ‘여성 관찰자’, ‘사소한 것에 대한 주목’, ‘여성의 직업 선택의 자유’로 근대성을 드러냈다.

4. 참고문헌

학술서적

이창신. 『미국 여성사』, 살림, 2004.

학술서적(번역본)

Tania Modleski(2005). The Women Who Knew Too Much; 임옥희 역. 『너무 많이 알았던 히치콕』. 여이연, 2007.

학술서적(번역본)

Michel Foucault(1975). Surveiller et punir : Naissance de la prison: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 감옥의 역사』. 나남, 2003.

인터넷자료

네이버지식백과 : 여성해방운동

URL: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20991&cid=42121&categoryId=42121>

(2016.07.16. 검색)

네이버지식백과 : 판옵티콘

URL: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31554&cid=43667&categoryId=43667>

(2016.07.16. 검색)

위키피디아 : Susan Glaspell의 연극 <Trifles>

URL: <https://en.wikipedia.org/wiki/Trifles>

(2016.07.17. 검색)